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543-551, Nov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43

JCCT 2022-11-67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Task Value on Class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진혜경*, 윤미진**

Jin Hye Kyung*, Yun Mi Ji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K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61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5일~10월 14일이었다.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부분매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수업참여도를 55% 설명하였다. 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참여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process that nursing students' task value affects class particip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1 second-yea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 University located in G city,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October 5 to October 14,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value and class participation was analyzed using Baron and Kenny's 3-step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procedure using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As a result of this study,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major factors influencing class particip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value and class participation. These factors explained 55% of class participation. In order to increase learners' class participation,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an improve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is needed.

Key words : Nursing Student,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Class Participation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9일

Received: October 31, 2022 / Revised: November 6, 2022
Accepted: Nov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monica41@hanmail.net
Dept. of Nursing, Kaya Univ, Korea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교육의 방향은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역동적이고, 복잡한 간호실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1, 2]. 참여는 학습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학습자가 수업과 관련된 활동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2-4].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업 자체에 몰입하고, 교수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필요하다[4]. 수업의 참여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주도적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5, 6], 수업 활동에 몰입하고,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수업의 참여 행동을 높일 수 있다[7, 8].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업에서 부여된 과제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학습자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9].

과제가치는 학습자가 과제에 몰입할 때 지각하게 되는 가치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생각하는 과제에 대한 흥미, 중요도 및 유용성을 의미한다[10]. 학습자들은 과제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제라고 느낄수록 그 가치를 높게 인식하여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몰입할 수 있다[9-11]. 반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과제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학습에 대한 몰입은 줄어들 수 있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제가치가 높은 대상자는 수업참여도가 높았으며, 과제가치는 수업참여도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11, 13-15].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신념이다[1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1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 효능감으로서 일반적 효능감과는 구별이 되는데[16], 긍정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18].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도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보고하였다[9, 11, 15].

반면, 학습자의 과제가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11, 13, 19], 학습자 스스로가 과제를 흥미 있고, 중요하며, 유용하다고 인식할 때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유연성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즉,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제가치가 높은 학습자는 그 주제를 더 많이 학습하고, 그와 관련된 조절지식이 증가하여, 자기조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21]. 또한 You와 Song[11]의 연구에서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수업참여도를 예측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직접적인 관계만을 다루고 있어[14, 15, 19],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과제가치 수준이 낮을 경우라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K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건강사정 교과목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164명 중 불완전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0, 효과크기 .15(보통정도), 독립변수 10개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47명을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과제가치

과제가치는 Pintrich, Smith, Garcia와 Mckeachie [10]이 개발한 도구를 Kwon과 Chung[14]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가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Chung[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Pintrich와 De Groot[18]가 개발한 도구를 Kwon과 Chung[14]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Chung[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5이었다.

3) 수업참여도

수업참여도는 Reeve[6]가 개발한 도구를 Kwon과 Chung[14] 수정·보완한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행동적 수업참여도 5문항, 인지적 참여도 4문항, 정서적 참여도 5문항, 주도적 참여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won과 Chung[14]의 연구에서 행동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 인지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83, 정서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85, 주도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고, 전체 수업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5, 인지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 정서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1, 주도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고, 전체 수업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 =.97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0월 5일~10월 14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해 설명하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참여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22].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24세로 만 20~22세 사이가 125명(7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133명(82.6%)으로 나타났다. 학과성적은 평균학점 B(중상위권) 88명(54.7%), C(중위권) 38명(23.6%), A(상위권) 22명(13.7%) 순이었으며, 학과만족도는 '만족' 113명(70.2%), '보통' 41명(25.5%), '불만족' 7명(4.3%)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음' 119명(74.0%), '보통' 40명(24.8%), '나쁨' 2명(1.2%) 순이었고, 의사소통은 '적극적' 91명(56.5%), '보통' 56명(34.8%), '소극적' 14명(8.7%) 순이었으며, 의견조율은 '잘함' 118명(73.3%), '보통' 41명(25.5%), '못함' 2명(1.2%)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참여도에 따른 차이는 학과성적($F=7.26$, $p<.001$), 학과만족도($F=12.29$, $p<.001$) 대인관계($F=12.30$, $p<.001$), 의사소통($F=13.14$, $p<.001$) 및 의견조율정도($F=4.07$, $p<.0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후 비교를 위해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 평균학점 A(상위권)는 평균학점 C(중위권)와 평균학점 D(중하위권)에 비해 수업참여도가 높았으며, 평균학점 B(중상위권)는 평균학점 C(중위권)에 비해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학과만족도에서는 '만족' 인 경우가 '보통' 보다, 대인관계가 '좋음' 이 '보통' 보다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의사소통은 '적극적' 인 경우 '보통' 과 '소극적' 보다, 의견조율을 '잘함' 이 '보통' 보다 수업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 수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과제가치 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23.85±3.76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45점 만점에 평균 27.56±6.75점, 수업참여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6.73±14.12점이었다. 수업참여도의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도 25점 만점에 평균 20.33±3.44점, 인지적 참여도 20점 만점에 평균 15.47±3.28점, 정서적 참여도 25점 만점에 평균 18.33±4.25점, 주도적 참여도 30점 만점에 평균 22.61±4.6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참여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업참여도는 과제가치($r=.67$,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5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가치($r=.53$,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에 대한 Durbin-waston 지수는 1.75~2.16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83로 0.1 이상이었고, 독립변수들 간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uation factor, VIF) 값은 1.000~1.208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와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먼저 수업참여도에서 차이가 나타난 학과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의사소통, 의견조율정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통제변수 처리하였다.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beta=.43$, $p<.001$),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4$,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과제가치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Class Particip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Class participation		
		M±SD	t or F (p)	Scheffé
Age (yr)				
≤19	17 (10.6)	76.94±16.96	0.05 (.953)	
20-22	125 (77.6)	76.57±13.92		
≥23	19 (11.8)	77.63±13.52		
	21.24 ±4.28			
Gender				
Male	28 (17.4)	79.18±13.55	1.01 (.315)	
Female	133 (82.6)	76.22±14.24		
School grades				
A[a]	22 (13.7)	84.00±14.03	7.26 (<.001)	a>c,d, b>c
B[b]	88 (54.7)	79.34±13.59		
C[c]	38 (23.6)	70.00±12.23		
D[d]	9 (5.6)	68.78±11.05		
>D[f]	4 (2.5)	61.25±8.18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a]	113 (70.2)	80.10±13.27	12.29 (<.001)	
ordinary[b]	41 (25.5)	68.95±13.73		a>b
dissatisfaction[c]	7 (4.3)	68.00±7.83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a]	119 (74.0)	79.80±14.22	12.30 (<.001)	a>b
ordinary[b]	40 (24.8)	68.18±9.78		
bad[c]	2 (1.2)	65.50±6.36		
Communication				
active[a]	91 (56.5)	81.36±13.36	13.14 (<.001)	a>b,c
ordinary[b]	56 (34.8)	71.20±13.11		
passive[c]	14 (8.7)	68.79±11.89		
Coordination of opinions				
good[a]	118 (73.3)	78.61±13.61	4.07 (.019)	a>b
ordinary[b]	41 (25.5)	71.66±14.73		
bad[c]	2 (1.2)	70.00±4.24		

표 2.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 수준
Table 2. Level of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and Class participation (N=161)

Variable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SD
Task value	1~30	15~30	23.85±3.76
Academic self-efficacy	1~45	9~45	27.56±6.75
Class participation	1~100	41~100	76.73±14.12
Behavioral engagement	1~25	12~25	20.33±3.44
Cognitive engagement	1~20	6~20	15.47±3.28
Emotional engagement	1~25	5~25	18.33±4.25
Leading engagement	1~30	13~30	22.61±4.64

표 3.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와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and Class participation (N=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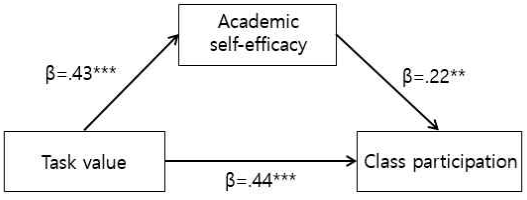
Variables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Class participation
	r (p)	r (p)	r (p)
Task value	1	.53 (<.001)	.67 (<.001)
Academic self-efficacy		1	.58 (<.001)
Class participation			1

표 4.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Process that Task value affects Class participation (N=161)

Equations	B	Beta (β)	t	p	Adj. R^2	F	p
Step 1.							
Task value → Academic self-efficacy	.70	.43	6.20	<.001	.35	15.28	<.001
Step 2.							
Task value → Class participation	2.02	.54	8.96	<.001	.52	30.01	<.001
Step 3.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 Class participation					.55	28.81	<.001
1) Task value → Class participation	1.67	.44	6.81	<.001			
2) Academic self-efficacy → Class participation	.46	.22	3.24	.001			
			Sobel test: Z=2.88, p=.004				

통제변수= 학과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의사소통, 의견조율정도.
Note. Control variable= school grade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of opinions.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수업참여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가치(β=.44,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β=.22, p=.001)이 수업참여도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과제가치는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의 2.02에서 3단계의 1.67로 감소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수업참여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55%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크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부분매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Z=2.88, p=.004) (Figure 1).



*p <.05, **p<.01, ***p<.001.

그림 1.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통제변수= 학과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의사소통, 의견조율정도)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process that task value affects class participation (control variable were school grade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of opinions)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학과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의사소통 및 의견조율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과제가치는 수업참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제가치가 수업참여의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9, 11, 14, 15, 23]. 학습자가 지각하는 과제가치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과제가치 수준이 높으면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14].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선택한 과목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9], 그에 따른 흥미롭고, 중요하며, 유용한 다양한 학습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19]. 반면, 학습자의 과제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24],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의미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과제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업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You와 Song[11]의 연구에서 과제가치 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수업참여도의 영향력은 다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에 비해 낮은 학습자들에게서 과제가치 지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수업참여도의 영향력이 더 민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경험을 통해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강한 자기 신념을 형성할 수 있고, 개인이 힘든 일을 겪을 때나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얼마동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17, 25, 26].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9, 11, 14],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다양한 인지전략 사용과 자기조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14]. 그러나 학습자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로 인한 실패의 경험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19]. Kwon과 Chung[14]의 연구는 플립러닝 환경에서의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모두 수업 참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 변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14]와 차이점을 두었다. 특히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11]를 실제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으므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개인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지닌 과제를 제시하고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즉각적인 피드백, 적절한 보상, 도전적인 퀴즈 등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수업참여도는 평균 76.73점으로, Kwon과 Chung[14]의 교실수업 참여도 평균 72.88점보다 높았다. Kwon과 Chung[14]의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점이 상위권일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의사소통이 적극적인 경우, 의견조율을 잘하는 경우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의 흐름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학업의 성취도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9]. 따라서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전달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참여 기반의 수업설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반면, Jeong[9]의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관심과 지지, 철저한 평가 적용 및 출석체크, 과제부여와 피드백, 효율적인 수업방식 등이 수업참여에 영향을 주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심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여 추후 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과제가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면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연령의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 연구의 확장을 제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과제가치는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과제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수준에 따른 흥미롭고, 중요하며, 유용한 다양한 학습주제를 선택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과제가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으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 전략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M.G. Kim, H.W. Kim, "The Effects of Jigsaw Cooperation Lear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oper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4, pp. 508-516, November 2019.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508

[2] S. Hong, S. Kim, "An Integrative Review of Learning Experiences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pp. 111-122, May 2020.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11

[3] M.D. Dixson, "Creating Effective Student Engagement in Online Courses: What Do Students Find Engaging?," *Journal of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Vol. 10, No. 2, pp. 1-13. June 2010.

[4] J.A. Fredricks, P.C. Blumenfeld, and A.H. Paris,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4, No. 1, pp. 59-109, 2004.

[5] G. El-Sayad, N.H. Md Saad, and R. Thurasamy, "How Higher Education Students in Egypt Perceived Online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omputers in Education*, Vol. 8, No. 4, pp. 527-550, June, 2021. https://doi.org/10.1007/s40692-021-00191-y

[6] J. Reeve, "How Students Create Motivationally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Themselves : The Concept of Agentic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05, No. 3, pp. 579-595, 2013. https://doi.org/10.1037/a0032690

[7] H. Patrick, A.M. Ryan, and A. Kaplan,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Motivational Beliefs, and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9, No. 1, pp. 83-98, 2007. https://doi.org/10.1037/0022-0663.99.1.83

[8] E. Skinner, C. Furrer, G. Marchand, and T. Kindermann, "Engagement and Disaffection in the Classroom: Part of a Larger Motivational Dynamic?",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00, No. 4, pp. 765-781, 2008. https://doi.org/10.1037/a0012840

[9] E.I. Jeong, "Explor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llege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Focus on Autonomy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 value",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Vol. 24, No. 2, pp. 355-378, 2012.

[10]P.R. Pintrich, D.A. Smith, T. Garcia, and W.J. Mckeachie, "A Manual for the Use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p.11)", *Technical Report*, No. 91-B-004. University of Michigan. 1991.

[11]J. You, and Y.H. Song, "Prob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Engagement and Persistence in an e-Learning Cours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3, No. 3, pp. 91-112, 2013.

[12]D.H. Schunk, and B.J.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Routledge,* 2012.

[13]E.J. Kim, D.H. Seo, and E.J. Ki, "Influence of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Engagement in Nursing Education using Smart Lear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7, pp. 229-236, July. 2020. https://doi.org/10.14400/JDC.2020.18.7.229

[14]K.K. Kwon, and H.M. Chung,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Task Value, Learning Engage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the Flipped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4, No. 3, pp. 407-439, 2018. https://doi.org/10.17232/KSET.34.3.407

[15]S. Lee, "The Relationship among Pre-Class Learning Participation, Task Value, Learning Presence, Class Participation, Learning Satisfaction in Teaching Profession Courses with Flipp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 pp. 1227-1253. 202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1227

[16]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 company*. pp. 606, 1997.

[17]A. Bandura,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ec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Vol. 41, No. 12, pp. 1389-1391, 1986. https://doi.org/10.1037/0003-066X.41.12.1389

[18]P.R. Pintrich, and E.V. De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pp. 33-40, 1990.

[19]J.W. You, H. Kim, and Y. Ch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ask Value, Online Academic Self-efficacy, Co-regulation for Promoting Entrepreneurship in Online Team Project Learn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2, No. 4, pp. 153-178, December, 2021. https://doi.org/10.15854/jes.2021.12.52.4.153

[20]P.R. Pintrich, and A. Zusho, "The Development of Academic Self-regulation: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A. Wigfield, & J. S. Eccles (Ed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249 - 284)*. San Diego, CA: Academic. 2002.

[21]D.H. Schunk, "Self-Regulated Learning: The Educational Legacy of Paul R. Pintrich",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40, No. 2, pp. 85-94, 2005.

[22]R.M. Baron, and D.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23]H.J. Ju,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Task Value, and Class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on Learning Satisfaction through Flip Learn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4, pp. 211-225, 2021. https://doi.org/10.17703/JCCT.2021.7.4.211

[24]C.S. Hulleman, O. Godes, B.L. Hendricks, and J.M. Harackiewicz, "Enhancing Interest and Performance with a Utility Value Interven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02, No. 4, pp. 880-895, 2010.

[25]J.A. Kim, "Effects of Nursing Education using a TBL on Self Efficacy and Self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pp. 26-43. 2017. https://doi.org /10.17703/IJACT.2017.5.2.26

[26]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p. 23-28. 1986.